“전북교육청-교육공동체 협력 강화”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간담회’ 개최… 진로진학 · 교육활동 보호 정책 등 논의도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학교운영위원장, 전북학생의회 의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학교운영위원장과 전북학생의회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전북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서거석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진로진학 정책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 등 전북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학생의원들은 진로진학센터 운영,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등 진로·진학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진로진학센터에서는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 전문가인 대입지원관과 파견교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로진학 상담을 하고, 진로융합교육원은 융복합활동 중심의 진로체험과 고입·진학·진로상담 등을 관리한다.

서 교육감은 “진로진학센터와 진로융합교육원은 진로와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진로·진학 관련 상담과 진로 체험 등 진로·진학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교육청과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정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소중한 기회였다”며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성 학생의원(완산고)은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5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이 열린 가운데, 신입생들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신입생들의 앞날을 축하합니다”

전주교대, 2025학년도 입학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5일 황학당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교대 학부 신입생은 272명,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은 31명이다.

이날 입학식은 정한기 학생처장의 사회로 △개식 △국민의례 △내빈 및 보직자 소개 △입학 허가 선언 및 선서 △축사 △교수 소개 △교가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생 선서로는 학부 대표로 홍다경 학생이, 교육대학원 대표로 교육연극전공 정윤정 선생님이 각각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박병춘 총장은 훈사를 통해 “전주교대에서 예비교원으로서 학문의 길을 걷게 될 신입생들의 앞날을 축하한다”며 “4년 동안 꿈을 향해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공무직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 추진

전북교육청, 6800여명 대상 올해는 상담 · 치료기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 6,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직무 스트레스와 개인적 정서문제, 대인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을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함께 심리적 안정 도모와 행복한 직장생활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는 상담 및 치료기관을 확대해 42개 상담기관과 24개 치료기관 등 총 66개 기관이 함께한다.

상담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운영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개인상담은 희망자가 직접 상담(치료)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시간에 기관을 방문해 상담·치료를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의 경우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이 필요한 그룹이 본청 노사협력과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업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상담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90만원), 집단상담은 연간 4회(8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이면 누구나 익명성을 보장받고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해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어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본격 추진

전북교육청,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온라인 영상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협력해 ‘한국어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한국교육원 이용욱 원장과 온라인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전북지역 학생들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의 학생 및 교원이 언어와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국제교류 사업 운영 방향 △양 기관 협력 구축 방안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학생·교원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과 교육정책 및 학생·교직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용욱 원장은 “한국어를 매개로 한 국제교류가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전북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즈벡 저탄소 축산 해결책 제시 ‘관심집중’

전북대 글로벌학생 연합팀 지속가능 농업 위해 현장 연구

농생대 이학교 교수팀 개발 저탄소 축산 농법 KOICA 정부부처-지자체 공공협력 ODA 사업으로 전북도와 협력

전북대학교 글로벌학생 연합팀이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장 연구에 나섰다.

전북대학교 글로벌학생 연합팀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현장 연구를 통해 저탄소 축산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2학기 ‘국제문제해결 창의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된 공모전을 통해 글로벌 학생 연합팀을 구성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방문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농림부와 축산위원회, 축산연구소 및 한국의 KOICA 우즈베키스탄사무소, 농촌진흥청 KOPI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한국 대사관 등과의 인터뷰 및 정책 회의를 통해 저탄소 농업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원도연 대사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과 국제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로, 농업 분야에서도 비중이 큰 축산 메탄가스 감소를 도전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저탄소 농법 도입에서는 기술 및 재정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대 학생들이 나선 것이다. 글로벌학생 연합팀은 농생대 이학교 교수팀이 개발한 저탄소 축산 농법을 KOICA의 정부부처-지자체 공공협력 ODA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전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친환경 농업 기술, 메탄가스 배출 절감 방안 등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며 기술 이전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긴밀히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농업 담당자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술 이전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저탄소 농업을 위한 사료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자원 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관심을 보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4 공공데이터 제공 · 데이터기반 행정 ‘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전국 679개 기관(중앙 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개, 공기업·준정부 87개, 지방공기업 46개, 기타공공기관 240개, 시·도교육청 17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이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는 개방·활용, 분석·활용, 공유, 품질, 관리체계 등 5개의 영역과 20개의 지표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나눠 이뤄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100점 만점 중에 공공데이터 제공 92.56점, 데이터기반행정 90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 강임준 시장 단식 농성장 방문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26일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강임준 군산시장의 ‘새만금 사수’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4일부터 군산시청 광장에 설치된 천막에서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 관할권 사수’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는 최근 새만금지역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서 군산시가 연이어 배제되는 결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이다.

이장호 총장은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등 국립군산대 해양수산 관련 학과와 교수들이 연구 활성화와 인재 교육에 매진해, 군산 새만금 개발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역 전체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비전대, RISE사업 추진 발대식

RISE 사업 세부 전략 등 공유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5일 비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RISE사업은 지역과 대학에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다.

이날 행사에는 우병훈 총장, 박용균 기획처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보직처장과 라이즈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ISE 사업 비전 선포, RISE 사업의 세부 전략과 방향, 단위과제별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교내 구성원들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주비전대학교는 LINC 3.0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신산업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및 교육혁신의 성공 사례를 창출했다.

우병훈 총장은 “RISE사업은 대학의 역량과 지역 자원을 융합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인 만큼, 우리 대학이 전북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 사전 안내

전북교육청, 올해 사서 등 7개 직종 300여명 선발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안내문에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직종과 시험 일정 등이 담겼다.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7개 직종에 300여 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3월 17~19일 3일간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4월 26일, 면접시험은 5월 31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6월 12일 발표된다.

한편 이번에 공지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노경숙 노사협력과장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는 오는 3월 5일 안내할 예정”이라며 “직종별 채용인원, 자격요건 및 세부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교육공무직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